

요리한다, 고로 인간이다

이옥정

인간은 먹거리를 기르고 다듬고 조리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바치고 있는 살아있는 '요리인류'다. 이들의 손에서 탄생한 모든 음식은 인간처럼 끊임없이 이동하고 진화한다.

주요 논의 내용

- 요리하는 행위의 재발견
- 빵과 국수를 중심으로 한 문명의 발전
- 집밥의 의미와 그 변화 양상
- 노동에서 놀이가 되어가는 '식(食)'

인간은 재료를 소화, 흡수하여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는 능력 즉, 요리하는 능력 덕에 한정된 서식지를 벗어나 지구 곳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문명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요리하는 능력에 있다.

인류는 이미 3 만 년 전부터 빵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생존을 좌우하는 사막에서 유목민들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푸드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이 '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빵은 죽이나 국수를 만들 때보다 5 배 이상 물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 시간도 짧은 것이 장점이다.

이스트의 발견이 100 여 년 남짓 된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연히, 혹은 맥주를 주조하다 흐른 천연 발효종이 만들어낸 빵은 신의 선물과도 같았다. 빵을 주식으로 먹는 시대가 왔고, 문명의 서막이 열렸다.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혹은 파리의 멋들어진 카페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빵들은 문명의 상징이 되었다.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빵의 모습은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연료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이들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표상임을 의미한다.

이옥정

요리 프로그램 PD 이다. KBS 다큐멘터리 <누들로드> <요리인류>를 기획하고 연출했으며, <요리인류 키친>에서 프로듀싱 및 진행자로 참여했다. <누들로드> 시리즈로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했고, <요리인류>로 2015년 제 51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교양 작품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요리인류 키친』, 『죽죽』, 『누들로드』가 있다.

*** (중략)

지금은 밖에 나가 밥을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밥'을 먹으며 살아왔다. 인류에게 집은 밥을 짓고 나누어 먹기 위해 지어진 공간이었다. 고고학자들이 선사시대 유적지, 특히 주거 공간을 발굴할 때 발견되는 불을 피운 화덕, 먹거리를 보관하던 토기 등의 다양한 도구들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

인류 역사에서 외식의 역사는 매우 짧다. 우리가 '외식'하면 떠올리는 근대적인 레스토랑의 모습은 18 세기가 되어서야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등장했고, 돈과 시간의 여유를 가진 부르주아 계층이 주 고객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외식이 라이프스타일의 일부가 된 시기를 1970 년대 이후로 볼 정도로 외식은 예외적인 경험이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의 끼니를 집에서 해결했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집에서 만든 밥을 도시락에 싸 와서 먹었다.

하지만 이제 밥이 상품이 된 시대. 내 가족이 아닌 기업이나 다른 이가 만든 밥으로 일상의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까지 있었던 개념의 집밥은 사라지고 있다. 집은 밥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사오거나 배달 받아서 먹는 장소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주방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요리는 노동이 아니라 놀이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에서 '쿡방', '먹방'이 유행하고 '맛집'이 하나의 키워드가 된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요리하고 먹는 행위가 오락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유독 '먹는' 순간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현상은 집밥에 대한 오래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누군가와 더불어 밥을 먹어온 존재다. 집에 모여 밥을 짓고 나누며 그 과정에서 안정감과 정서적 소속감을 느껴왔다. 만약 그 원초적인 공감의 경험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면 인간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빵과 국수에서 시작하여 오랫동안 집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식(食)'의 엄숙한 역사가 바뀌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시

2020 년 6 월 1 일, 오후 7 시 30 분-9 시 30 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